



##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낮은 곳으로 -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의 나아 갈 길을 모색하며 -

김성훈 교수

(본회 고문, 중앙대(현 UBC 초빙)교수, 제50대 농림부장관)

지난해(2001년) 7월에 이어 올 8월 두번째로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 관련 민관대표 30여명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초청으로 캐나다 유기농업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는 마침 British Columbia(BC)주의 수도가 있는 Victoria에서 제14차 세계유기농업 대표자회의가 열려 50여개국 1,200여명의 각국 유기농업 관련자와 자리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제4차 유기농산물 전시회에 한국 유기농산식품을 당당히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유기농업의 위상과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 현지 소비자와 식품업계 그리고 대회참가자들이 한국 상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수입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생각치도 않았던 주문을 해왔을 때 정진영 유기농업협회 부회장등 전시회 주관자들이 당황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국제화, 세계화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그 반대로 외국 유기농업 제품이 한국으로의 진출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친

환경농업을 지원 육성하고 판로를 개척해주며 소비자들이 적극 호응하여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외국의 유기농산물과 그 제품이 값싸고 맛좋은 품질을 앞세워 언젠가 국내시장을 뚫고 들어 올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한국유기농 캐나다시찰단을 따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농민대표들의 단골질문이 정부가 얼마나 유기농업을 지원하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물론 유기농업 기술 선진국인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R & D에 머물고 있을 뿐, 직접 현금지원은 없다. 이 점은 2010년에 유기농산물의 비중을 10%로 목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통상적인 농업보조 이외에 특별한 지원이라고는 지역사회 농업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Agriculture)과 지역사회 식량안보운동(Community Food Security Program) 등 NGO/NPO 운동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농·도연대 사업을 약간 그것도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 쿠마모토(熊本)에서 개최된 시민환경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그들은 올 봄 NHK에 보도



▲ 올 8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제4회 유기농산식품 전시회 광경들, 여기서 한국의 유기농산식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된 1시간짜리 “한국의 유기농업” 특집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며 거기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身土不二 農都不二”라는 농업 슬로건을 그대로 옮겨 한 분과 회의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었다. 20~30년전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유기농업의 “선생(先生)” 역할을 자임하던 일본의 유기농민들이 소비자들과 정부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 기간 내내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업의 급성장 배경을 학습하며 한국을 따라 배우자고 결의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한국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정책과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사례를 일일이 되물어 학습하는 현장을 지켜 보며서, “얼음은 물에서 났으나 물보다 차다”는 선인들의 말이 생각났다. 심지어 쿠마모토 유기농업의 정신적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토구노 사다오(徳野貞雄) 교수 같은 이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선전 구호인 “별레 먹고 못 생겨도, 더 맛있고 안전해요.”라는 표어와 “신토불이(身土不二) 농도불이(農都不二)”라는 슬로건을 마치 일본유기농운동의 모토로 만들 작정인양 일본 소비자 대표들과 쿠마모토 유기농업연구회 하자마(間司) 이사장 및 오오구시(大和) 九州농정국장등이 참석한 모임 등에서 수차례나 소리 높여 제창하

는 것을 목격하였다. 과거의 제자가 선생이 된 듯한 착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캐나다 유기농업 성장 배경과 세계유기농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이 일편단심 비화학(非化學)적 유기농업에 전심 전념해온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마침내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심금을 움직여 유기농업 붐을 범세계적으로 일으켰으며 오늘날은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비료, 농약, 곡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다국적 초국경기업들(MNC's/TNC's)의 반대 역압 로비에서 살아 이긴 결과이다. 연수단을 감격시킨 것중에 하나는 UBC 농과대학 학생들이 3ha의 대학건물 후보지를 농성 끝에 지켜내어 유기농업 시험장으로 만들고 밤낮으로 유기농업 현장 실습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기술과 자신을 얻은 그들은 앞으로 일생을 유기농업에 종사할 각오를 다짐하고 있었다.

British Columbia(BC)주 과일생산의 65%를 담당하는 오까나간 골짜기의 과수 유기농민들은 일본과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후지사과와 체리의 유기재배에

성공 이미 일본과 미국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이 유기농민들이 자력으로 협회를 조직, 선별·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다행한 것은 바로 이곳의 중심부인 'Summerland' 라는 곳에 위치한 중앙정부 농업시험장이 유기과수에 대한 품종, 기술, 자재 개발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험장에는 일본등 수개국에서 정부 연구사들이 파견되어 있으나 아직껏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연구관을 호스트 해본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동행한 우리들을 무안케 했으나 아직 위에 보고되지 않은 듯하다.

**세** 계유기농대회에서 다시 확인한 바이지만, 쿠바는 전체 농민과 전체 농업이 모두 친환경 유기농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인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재 적소 적시에 조달할 수 없었던 상황하에서 선택하게 된 유일한 농법이 친환경 유기농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21세기 세계 사조(思潮)의 주류가 되고 있는 세기적 대변혁 시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세계농업의 꼴찌였던 쿠바의 유기농법이 세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역사의 엄연한 아이러니(逆說)임에 틀림없다. 이미 정농회(正農會)에서는 21세기의 모델 "쿠바의 유기농업(가네꼬 요시노리 외 지음)"을 번역 소개한 바있지만, 2003년 5월 쿠바 유기농본부가 주최하는 국제연찬회의에 우리 민관 대표들이 되도록 많이 참가하여 우리 유기농 기술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

때마침 UBC의 초청으로 10월 31일~11월 7일까지 밴쿠버와 BC주를 방문한 북한농업과학원의 부원장 일행 4명이 열심히 이곳의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귀국한 것은 북한도 친환경 농업분야로의 진

출에 고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쿠바와 여러모로 정치 경제환경이 비슷한 북한농업으로서는 유기자재 공급만 원활히 확보 될 경우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법이야말로 우리처럼 토양과 하천이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기전에 식량증산과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다. 이는 통일에 앞서서 우리나라 민관이 남북한간의 농업협력분야의 하나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자재, 기술 가공 판매(무역) 분야의 협력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심각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 서울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농림부는 2003년부터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실시하여 왔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ha당 7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도 다른 한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 1998년 11월11일 제2회 농민의 날을 기해 정부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며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한 자리에서 유기농업단체 대표자들과 주고 받은 다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은 과거 2~30년 동안 정부의 직접지원은 커녕 억압받는 정책 분위기에서 신앙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진 선구적인 농민(단체)들에 의해 묵묵히 실천되고 뿌리내려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능동적으로 21세기 친환경 세계 사조에 부응하고 WTO개방체제와 IMF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생존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직접 재정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만 믿고 무임승차한 자질이 의심되는 농가들이 사전교육과 각오가 없이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친환경농업을 표방하며 나설 경우, 자칫 품질저하와 사이비 유기농산물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초래하게 되면 유기농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있고, 너무 값이 높을 경우 외국의 값싼 유기농산물들이 대거 수입될 수도 있다. 유기농단체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지도 감독하여 유사(가짜)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발단을 틈을 사전에 막고 생산비를 더욱 낮춰 판매가격을 내리는데 계속 노력해야 우리 유기농업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었다. 더욱이 사이비 유사 유기농업과 일부 선의의 유기농민들이 만약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흔한 말로 정부가 권장했으니 정부가 가격과 소득을 보상하라고 들고 일어서는 사례가 절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 수많은 친환경 농산물 애용 소비자들이 정치적 천민상업적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먼저 등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수구초심, 초지일관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하늘도 살리며, 소비자와 건강을 지키는 농사”를 짓겠다는 신념과 철학을 모두 공유하도록 자체 교육과 계몽으로 사전에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하늘의 순리에 따라 우리 소비자와 도시주민 그리고 정부가 보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다짐했었다.

이것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기농 선구자 농민들의 일관된 생각

이며 철학이다. 최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4년(1999~2002) 사이에 매년 60%씩 유기농이 증가하여 어느덧 3만여 농가(전체 농가의 2%이상)로 늘어나 친환경농업이 머지않아 10만호, 20만호로 늘어날 경우 앞서 말한 사례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 오히려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에 큰 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여 선의의 모든 친환경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 흠과 물과 하늘과 생명농업에 정직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내부의 부정적인 요인을 자율적으로 제거할 각오와 체제와 반복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박재일 전회장, 정상목 현회장) 주관의 캐나다 연수 의의가 크다고 본다. 결론으로 “이상과 철학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실천과 협동은 더 낮은 곳을 찾아 가는” 영농 철학을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단체들의 공식입장, 즉 앞으로 나아 갈 목표로 총정리 하였으면 한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초심(初心)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나 사 먹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돈이나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유기농업의 궁극적인 실천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그동안 두차례의 선진유기농 연수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유기농으로 돈을 벌고 소득을 늘리는 것은 참농부의 이상과 농심(農心)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하늘의 선물)이어야 참 유기농업이다. 하늘과 땅과 물과 생명을 살리려고 구슬땀을 흘릴 때 하늘은 반드시 도시소비자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친환경 유기농업을 북돋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러니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나아 갈 때이다. ㉞